

간협-치협-한의협 단독법 제정에 힘 결집

낡은 의료법 체계 혁신하고 국민 중심 보건의료 가치 실현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와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 등 3개 의료인단체가 '낡은 의료법 체계 혁신과 국민 중심의 보건의료 가치 실현을 위한 단독법 추진 협약식'을 갖고 간호사와 치과의사, 한의사의 힘을 하나로 모아 단독법 제정을 실현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

대한간호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는 11월 7일 오전 서울 컨벤션호텔에서 단독법 제정 추진을 위한 협약식을 가졌다.

대한간호협회를 비롯한 3개 의료인단체는 협약식을 통해 "세계 보건의료 패러다임은 1980년대부터 치료 중심에서 예방과 만성질환관리 중심, 그리고 공급자에서 국민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낡은 의료법 틀에 묶여 현대 보건의료의 새로운 가치와 요구를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 중심으로 의료인의 면허체계를 확립하고, 국민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가장 '간호법', '치과의사법', '한의약법' 제정을 함께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3개 의료인단체는 "단독법 제정을 통해 현행 고비용-저효율인 의료시스템을 의료인과 환자 중심으로 혁신해야 한다"면서 "전문화·고도화된 간호학, 치의학, 한의학의 변화와 발전을 담아낸 독립법률로 국민들에게 안전한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단독법 제정을 통해 간호, 치과, 한의과 분야에 대한 높아진 국민들의 욕구와 가치를 실현



왼쪽부터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철수 회장,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 이들 3개 단체장은 가칭 간호법, 치과의사법, 한의약법 등 단독법 추진에 힘을 모으기로 하고 협약서에 서명했다.

할 것"이라면서 "현재 의과 중심으로 검토 추진되고 있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제도에 다학제적인 참여가 보장되고 포괄적인 사업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가칭 '간호법', '치과의사법', '한의약법' 제정 추진을 위한 실무협의체를 구성할 것"이라며 "변화된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낡은 의료법 체계를 혁신하고, 국민의 보건의료에 대한 높아진 요구와 가치에 부응하는 안전하고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규숙 기자 kschung@koreanurse.or.kr

복지부-경찰청 '응급실 폭행 방지 대책' 발표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확대 ... 응급실 보안인력 배치 의무화

응급실 내 의료진 폭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형량하한제가 추진되며, 흉기 사용 등 주요 사건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한다. 응급실 보안인력 최소 배치기준을 명시하고, 응급실-경찰 간 핫라인을 구축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경찰청(청장 민갑룡)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응급실 폭행 방지 대책'을 11월 12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잇따라 발생한 응급실 내 응급의료종사자 폭행 사건을 예방하고 안전한 응급실 진료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조치이다. 실효성 있는 예방적 법·제도 개선, 신속하고 효율적인 현장 대응, 응급실 이용 문화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대책에 따르면, 먼저 응급실 폭행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형량하한제 도입을 추진한다.

현행 응급의료법상 폭행은 형법(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보다 강한 처벌 규정(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명시하고 있지만, 실제 처벌이 미미한 점을 감안해 규범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해 상해에 이르러 진료를 방해한 경우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부과하는 등 사람, 장소, 가발 행위 등과 관련된 법적 요건을 엄격히 규정할 방침이다.

또한 응급의료기관 지정기준에

보안인력 최소 배치기준을 명시하고, 응급실 보안인력 확보 등을 위한 응급의료수가 개선을 검토한다.

폭행 등 진료방해 행위의 67.6%가 주취자에 의해 발생한다는 점에서 경찰청-지자체-의료기관 협력 하에 운영 중인 주취자 응급의료센터를 확대한다. 진료가 필요한 주취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경찰-의료기관 간 업무지침도 마련한다.

응급실 폭행 사건 발생 시 경찰이 신속히 출동해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고, 흉기 사용, 중대 피해 발생 등의 주요 사건은 공무원행위예외에 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응급의료 현장 폭력행위 대응지침'을 시행한다.

응급의료종사자 대응지침도 마련해 폭행 예방을 위한 응급실 환자 응대 요령을 안내하고, 폭행 사건 발생 시 안전한 장소로 대피, 경찰 신고, 증거 확보, 경찰 수사 협조 등 후속조치 사항을 제시한다. 응급실-경찰 간 핫라인(폴리스콜) 구축을 독려하고 CCTV, 휴대용 녹음기 등 보안장비 확충을 지원한다.

아울러 이용자 친화적인 응급실 환경을 조성하고 응급실 이용 정보 제공을 위한 홍보를 강화한다. 응급실 안내·상담을 전담하는 책임자를 지정해 환자·보호자에게 응급실 이용 및 진료 정보를 충분히 제공한다.

주혜진 기자 hjoo@



간호조직체계·문화혁신
배지 달기 캠페인



'행복한 간호사, 건강한 국민' 배지 달기 캠페인에 화명일신기독병원 간호부(간호부장 이찬희)에서 참여했다.



'행복한 간호사, 건강한 국민' 배지 달기 캠페인에 맥켄지일신기독병원 간호부(간호부장 이경호)에서 참여했다.



'행복한 간호사, 건강한 국민' 배지 달기 캠페인에 호사랑가족요양병원 간호부(간호부장 김은희)에서 참여했다.



'행복한 간호사, 건강한 국민' 배지 달기 캠페인에 익산원광효도요양병원 간호부(간호부장 손영순)에서 참여했다.

간협, 간호법 제정 위해 총력



대한간호협회는 11월 1일 개최한 '2018 간호정책 선포식'에서 간호법 제정을 반드시 이루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대한간호협회가 간호법 제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천명했다.

대한간호협회는 '2018 간호정책 선포식'을 11월 1일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고 간호법 제정을 비롯한 간호정책 8대 중점과제를 선언했으며, 이번에는 반드시 간호법 제정을 이루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특히 간호정책 선포식에는 정당 대표들과 여야 국회의원 60여명이 참석해 간호사들을 격려했으며, 간호법 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한목소리로 약속했다.

축사를 한 여야 국회의원들은 "간호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국회

에서 적극 지원하고 협력하겠다"면서 "간호사들이 현장을 떠나지 않고 보람을 느끼면서 일하고, 일한 만큼 정당하게 인정받고 대우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간호정책 선포식에 참석한 간호사와 간호대학생들은 '간호법 제정!!' 글씨가 새겨진 피켓을 들어 한마음 한뜻을 보여줬다.

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는 정부와 국회의 전폭적인 지원과 협력으로 지난 2011년 세계 최초로 간호교육 4년 학제 일원화를 실현했다"면서

"2015년에는 1951년 국민의료법 제정 이후 64년 만에 간호사의 업무를 명확히 하고 간호·간병통합 서비스를 법제화하는 쾌거를 이뤘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간호가 대한민국 보건의료시스템의 혁신을 주도해 나가겠다"면서 "고령화와 질병구조 변화에 따라 보건의료전달체계를 혁신하고, 의료비 절감을 실현하는 가장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은 국민건강증진과 생명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간호법'을 제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규숙 기자 kschung@

대한민국 의료국책사업 수행 안동병원 간호사 모집 특별전형

안동병원이 대한민국 의료국책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간호사 모집 특별전형을 실시합니다.

안동병원 간호사 모집 특별전형



전국 최고의 급여 | 신규 평균 연봉 4천1백7십만원
3교대, 나이트근무 7개, 퇴직급여 미포함



일하기 좋은 환경 | 3교대, 병동 20~40병상, 짧은 동선, 기숙사
쾌적한 간호기숙사 제공, 출퇴근 버스 운행



간호인력 1등급 실현
전국 최고 급여, 일하기 좋은 근무환경, 간호인력 1등급 실현



전문간호사 육성 | 대학병원급 의료인프라 구축
대학병원과 같은 수준의 의료인프라 - 전문간호사 육성



간호학생 1년 등록금 지원 | 1학기, 2학기 전액
이미 납부 완료한 등록금은 소급 지원

안동병원 간호사 모집 특별전형 문의

■ 접수기간 : 2018년 11월 20일(화)까지
■ 접수문의 : 안동병원 총무팀 (054)840-1450

※ 자세한 내용은 안동병원 홈페이지(www.agh.c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동병원이 운영하는 대한민국 주요 의료국책사업



보건복지부 지정
권역외상센터



보건복지부 지정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보건복지부 지정
권역응급의료센터



보건복지부 지정
경북닥터헬기